세번째 '호남민심 다지기' 전력쏟는 安

광은·인재육성 등 지역현안 해법제시

단일화 앞두고 대규모 콘서트 세확장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8일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다지기에 전력을 쏟았다.

안 후보는 이날 광주은행 지역 환원 약속 등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일부를 발표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조속한 회동을 통한 단일화 협상 재개 소식을 알리며 호남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다.

안 후보의 이번 호남 방문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세 번째로, 단일화 파행으로 출렁이는 야권 민심을 다독이는 동시에 앞으로 단일화 향배를 좌우할 호남 바닥 민심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날 광주 한 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지역격차를 줄이는 진정한 방법은 지역에 재정과 권한을 전폭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일부 지역 정책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 공약으로 "광주은행 지역 환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지역은행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새만금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검토해 두 사업 모두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대학 육성, 지역 이공계 대학부터 반값 등록금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인사탕평책과 관련해서는 "장·차관 여성 인력 30% 목표처럼 지역에도 목표를 정해서 내부적으로 인선하는 인사 탕평책을 실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뒤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해피스 광주콘서트'에 참석해 세 확장에도 주력했다.

이날 콘서트엔 시민·대학생·해피스 회원 등 40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시민 승리, 정치교체, 정권교체'를 연호하며 안 후보를 응원했다. 부인 김미경씨와 함께 콘서트장을 찾은 안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를 위해 하나가 될 것"이라며 "끝까지 여러분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겠다"고 단일화와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한 뒤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아마도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단일화에 대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단일화 협상 중단과 관련해 일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저를 외롭고 힘들게 하는 것은 선의가 때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이날 광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교수 등 지역 여론 주도층 인사 19명과 오찬을 함께 했으며,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이이남 작가 개인전 등에 참석하며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 확대에 주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안철수 연호 '해피스콘서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린 '해피스 콘서트'에 입장하고 있다. '해피스'는 안 후보의 팬클럽으로, 이날 행사에는 팬클럽 회원 등 지지자 4000여명이 참석해 안 후보를 연호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문-안 '勞心잡기' 주력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비정규직 해법 내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17일 '노심'(勞心) 잡기에 주력했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나란히 참석,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구상과 의지를 밝혔다.

이들의 조우는 지난 6일 문·안 후보의 단일화 회동 직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차례 있었으나, 야권 후보단일화가 대선정국 전면에 부상한 후에는 처음이다.

박 후보는 축사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철폐, 장시간 근로관행 개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노동 현안에 대해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등을 공약한 뒤 "임기 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노동민주화 없이 이뤄지지 않으며, 노동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분배과정에 참여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노동권을 복원하려면 한국형 뉴딜이 필요한데 이는 노조의 힘을 키워 대등한 노사관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당원 후보지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광주·전남 민주 전직의원 등 67명 주장 파문

2002년 '후단협'사태 악몽 재현되나 촉각

광주·전남지역 전직 국회의원과 구민주·동교동계 일부가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 전직 의원 67명이 지난 16일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가운데 지지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더라도 안 후보 지지를 허용해달라는 이런 주장은 문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당내 전열 약화와 내부 동요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자칫 2002년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사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이들은 후보 간 정체성이 다르고 당 후보의 지지율을 급락했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친노(친노무현)계를 중심으로 하는 당 주류 측은 이날 회견을 '해당행위', '문재인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맹비난하고 있으나 현역 의원들 가운데에도 쇄신파 등 비주류 인사들을 중심으로 '친안(친안철수) 그룹' 이 형성돼 있어서 이날 성명그룹과 보조를 맞출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비주류 인사인 이종걸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나왔다.

이날 정대철·이부영 전 의원 등 '정권교체와 민주헌정 확립을 희구하는 전직의원 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 경쟁을 보다 더 민주적 정치과정의 무대로 만들기 위해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장애를 걷어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중앙당이나 지역위원회의 당직자들이 안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힐 경우 일종의 해당행위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탈당하지 않으면 안 후보를 지지할 수 없었는데 이런 내부 방침은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안 후보에 대한 지지표시를 당에 위해로운 것으로 정해 놓고서 입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민주당 당원들이 상대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채 한 무대에서 단일화에 나서라고 하는 것도 불공정 경쟁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광주·전남지역 김경천·김영진·김재균·김충조·박광태·박상천·박석무·배종무·신순범·신중식·유인학·조홍규·천용택 전 의원을 비롯, 김덕규·김재홍·김태랑·김희철·박실·유재건·이근식·이우재·이종찬·이창복·이철·장복심·장세환·장재식·조배숙·조성준·조재환·최용규·최종원·허운나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민주 순천·광양 등 시민캠프 발대

민주통합당 순천·광양·여수·구례·곡성 시민캠프 발대식이 16일 순천시내 탑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추미애 국민통합위원장, 이낙연 선대본부장, 주승용 국민통합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선대본부장은 "단일화가 결행되면 한 사람은 후보가 되고 한 사람은 영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정신으로 후보단일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민통합수석부위원장은 "단일화 파행에 대해 걱정이 크지만 옥동자를 순산하기 위한 고통으로 생각하자"며 단일화를 강하게 낙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보성·고흥·장흥 시민캠프 발대식에 이어 17일에는 목포 등 전남 서부권, 화순 등 전남 중부권 등 2곳에서도 시민캠프 발대식을 열었다.

최재성 "단일화 위해 총선 불출마"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16일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간 단일화 성사를 촉구하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최 의원은 이날 광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 새로운 정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차기 국회의원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과 걱정시켜드린 국민에 대한 일종의 참회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486세대 정치인인 최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남양주갑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 내리 3선을 지냈으며 현재 문 후보 선대위 산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으로 국회 예결특위의 민주당 간사도 맡고 있다.

安 후보 국정자문단 호남 방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의 국정자문단은 전국 일주 프로그램 '진심캠프 국정자문단이 간다 시즌1'의 첫 방문지로 호남을 선택, 19~20일 전주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한다.

전직 장·차관, 예비역 장성, 원로급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국정자문단은 이번 방문에서 지역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 등을 만나 안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국정자문단은 20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의 지역 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철·저·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음향 이득효과가 큽니다.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 아세아 / 주차장 / 서울 / 기아 / 광천터미널 / 신세계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 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사정상 · 급매
신안동 제일오피스텔(사무실전용)
1. 14층 건물 중 2층 코너 50평
2. 주차 3대 무료, 대형 주차장
3. 실내인테리어 2000만원 소요
4. 융자 5천만원 정도 가능
5. 현, 보 1천만원에 월 50만원 임대중
6. 급매가 8500만원(시세 1억1천만원)
7.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능
문 의 : 010-3605-5000
010-4667-93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